

박형준 / 2월 / 도약 GS / 8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29059	21	14	17.5	14	66.5	1	2.78%	7	36
534241	21	13.5	18.5	12.5	65.5	2	5.56%	7	
534806	20.5	14	17	12	63.5	3	8.33%	6	
534161	20	13.5	17	9.5	60	4	11.11%	5	
534175	20.5	13.5	15.5	10.5	60	4	11.11%	6	
534346	20	14	14	11.5	59.5	6	16.67%	5	
534451	20.5	13.5	15	10.5	59.5	6	16.67%	6	
529129	19.5	13	16	10	58.5	8	22.22%	5	
534231	21	13	13.5	11	58.5	8	22.22%	6	
534347	19.5	13	15	10.5	58	10	27.78%	4	
534423	20	13.5	15	8.5	57	11	30.56%	5	
529402	21	10.5	16.5	8.5	56.5	12	33.33%	6	
534250	19.9	13	15	8.5	56.4	13	36.11%	5	
534343	19.5	13.5	13.5	9.5	56	14	38.89%	4	
524233	20.3	13.5	14.5	7.5	55.8	15	41.67%	5	
529237	21	12	11.5	11	55.5	16	44.44%	6	
534165	19.5	13.5	12.5	10	55.5	16	44.44%	4	
534391	19.9	14	12.5	9	55.4	18	50.00%	5	
534160	21	11.5	14	8.5	55	19	52.78%	6	
534388	19.3	13	14	8.5	54.8	20	55.56%	6	
529165	21	13.5	11	9	54.5	21	58.33%	5	
534381	20.5	14	12	8	54.5	21	58.33%	6	
534194	19.9	12	13.5	8.5	53.9	23	63.89%	5	
534196	21	12.5	13.2	7	53.7	24	66.67%	6	
534355	19.8	13.5	13	6.5	52.8	25	69.44%	4	
529277	19.5	12.5	15.5	3.5	51	26	72.22%	5	
534348	18.8	13.5	10.5	8	50.8	27	75.00%	5	
534166	21	13	12.5	2.5	49	28	77.78%	4	
534205	20.5	12	13.5	2.2	48.2	29	80.56%	5	
534468	19	11.5	11.7	5	47.2	30	83.33%	4	
534426	20	11.5	10.5	4.5	46.5	31	86.11%	5	
534202	20.5	10	9	5.5	45	32	88.89%	6	
534187	19.9	10.5	13	1.5	44.9	33	91.67%	4	
534163	18.5	12	9.5	2.5	42.5	34	94.44%	5	
534188	14	12.5	7.5	4	38	35	97.22%	4	
534247	15.8	10.5	7	2.7	36	36	100.00%	5	

박형준/2월/도약GS/8회/1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중요 판례를 타겟팅한 문제였습니다.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1</p> <p>139조 2항, 3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첫 문제에서 마주하면 실수하기 쉬운 논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p> <p>(2) 설문 1-2</p> <p>판례를 두꺼운 포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 이라고 판례 목차 옆에 기재해주시는 것이 가독성이 더욱 좋아보였습니다.</p> <p>(3) 설문 2</p> <p>결론 틀리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판례의 키워드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4) 설문 3</p> <p>기재되어야 하는 판례 3개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p> <p>3. 소결</p> <p>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배점에 맞게 분량을 맞춰서 써주셔야 합니다.</p>	

박형준/2월/도약GS/8회/2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PCT라는 주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논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익혀두시고 넘어가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도면누락 발견 시 취급’을 언급해주신 후에, 국제출원일이 2024년 2월 3일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언급해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4개 정도는 암기해두시고 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p> <p>(3) 설문 3</p> <p>영어원문의 법적지위와 국어번역문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로, 분량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목차를 미리 암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4) 설문 4</p> <p>결론을 잘못 기재하신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답을 틀리면 감점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PCT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기 쉽지만, 항상 나오는 논점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다른 분들이 GS수업을 많이 수강하지 않는 2월부터 풀답안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힘내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p>	

박형준/2월/도약GS/8회/3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pbp 청구항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중요 논점이기에 다들 잘 작성하여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pbp 기본 단문 설문이었습니다.</p> <p>배점이 15점으로 비교적 크나, 작성해야 할 것을 설문에서 명확히 제시하여 주었으므로 다들 배점에 맞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 2</p> <p>甲 출원의 등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각 청구항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효과의 현저성”, “구조나 성질” 등의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출원 일체의 원칙”에 따라 甲 출원 전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답안이 다수 있었는데, 문제의 취지에 비추어 각 청구항의 적법 여부를 달리 검토한 경우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습니다.</p> <p>(3) 설문 3</p> <p>침해요건 판단에 있어 청구항 2의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설문 1에 작성한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判例를 다시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문제별로 통채점하므로 굳이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p>	

3. 소결

pbp 청구항 논점은 A급으로 손꼽히는 논점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므로, 판례를 정밀하게 암기해주셔야 합니다. 아직 2월이기에 암기의 정밀도가 낮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늦어도 5~6월까지의 암기를 완성해주셔야 합니다.

판례의 흐름 및 키워드를 먼저 암기하신 후 차츰 판례 암기의 정밀도를 높여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박형준/2월/도약GS/8회/4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젍슨 청구항의 전제부 공지 관련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20점으로 비교적 크므로 목차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무효심판의 적부를 검토하신 경우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 다만 적부에 대해 길게 작성할 실익은 없어 보였습니다.</p> <p>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선행문헌의 조합 가부 등의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에도 일정 점수를 드렸으나, 이를 길게 작성한 답안은 문제에서 묻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p> <p>3. 소결</p> <p>도약 GS 8회차까지 작성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p> <p>3월 실전 GS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약 GS를 기본서나 판례집에 단권화하는 시간을 갖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문-1>

I. 설문 (1) - 1)

2.8

1. 무효심판 피청구인 청구

(1) 무효심판 의의 취지 - 1332

공익상 하자있는 특허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피청구인 청구 - 1392 조항

공유 특허권 존속특허권자에 대해 심판 청구시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사항

甲. 2 모두에게 공동으로 피청구인 청구 인정된다.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인 청구

(1) 권리범위 확인심판 의의 취지 - 1352 조항

불쟁 예방 및 적확한 해결을 위해 특허권자는 제3자권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 청구 - 1392 조항

특허권 공동공유자가 그 권리에 관해 심판 청구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3) 사항

甲. 2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인 청구 인정된다.

II. 설문 ~~문~~ (1) - 2)

5.6



1. 심결취소소송 의의 취지 - 1862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심결 당사자 등은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2. 원고징징 - 1862 2항

甲과 2은 심결의 당사자로서 원고징징을 인정된다.

3. 문제점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139조 3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 모두가 공동으로 소 제기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4. 해석

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있다.

5. 사례

(1) 경주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상표법 관련 사안에서 공유자 1인만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심결을 취한 수 있게 하도록 하기위해, 공동으로 모든 각자가 심결취소소송 제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심결 취소소송 제기는 상표법의 비공행위로 보아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했다.

(2) 원고



① 1인의 2 제기를 분허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에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곤 할 수 있고, ② 1인의 2 제기를 허용하더라도 승인시 활동판결에 따라 모두에 대한 심판 절차 재개되고 패소시 유죄 심판 확정되는 바 심판 결과 합의하는 의미가 변화한다고 할 수 없다.

6. 검토

특정 공유어로 민법에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있는 바 위헌에 해당한다.

7. 사안

甲. 2 문 모두 공동으로 문헌 작자 유고자를 인정된다.

Ⅱ. 결론 (2)

5.6

1. 심판처치의 - 1867 688

심판처소송은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제기할 수 없다.

2. 문제점

심판처소송 절차에서 심판처치에서 심리·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 주장·입증 가능하지 문제된다.

3. 학제

① 심판처치주의를 규제하고 있는바 심판처치소송은 심판의 사
후심적 심판리에 주장 새로운 사유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
 및, ② 심판처치주의를 규제한 불인 바 심판처치소송은 복심적
사정을 가지므로 새로운 사유 주장할 수 있다는 무제한이다.

4. 위계

통 원칙적으로 심판처치에서 주심리·판단되지 않은 사유도
 당사자의 심차에 불합 문제 없는, 주된 처지 복합하는 때
 무 주장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심차에 불합
 문제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5. 경로

심판·소송 경리·기소심리한 제 등 복 때 원칙적으로 무제한,
 예외적으로 심차에 불합 문제시 제한으로 보는 위계 타
하다.

6. 사안

甲은 2에게 심차에 불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심판처
이 심리·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는 소송처치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

10.	심문 (3)
1.	심결치(소송) 심리범위 취(제)
(1)	심사.심판 단계
	‘소 62조, 63조, 170조 등 당사자의 청탁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인바 출원인에게 권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심결 등은 정당한 위법이 있다.
(2)	소송 단계
	이러한 법리는 심결치(소송)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야 하는 바, 소송단계에서도 의견제출기회 부여해 바 없는 사유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을 불허된다.
(3)	주된 취지 복합하는 경우
	이미 통지된 사유와 주된 취지를 복합하여 출원인에게 심판청구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바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
2.	진본성 판단 시 주된 취지 복합 판단 취(제)
	선형문헌 내용, 진본성 판단 제제사실, 판단 내용, 출원인의 변제 사항, 실제 출원인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등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3.	주행행방명 변경 취(제)
(1)	진본성 판단방법

출원반명을 선행공지기술 창작하여 작성하고, 주시행반명을 선행하여, 서로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한 후, 그러한 차이가 해당 기술자가 당해 기술수준 고려하여 쉽게 극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단한다.

(2) 주시행반명 변경

주시행반명을 변경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판단 내용이 달라진 것이므로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재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4. 사안

(1) 주시행반명 변경 여부

특허청 소송심판자는 소송단계에서 주시행반명을 2로 변경할 바 이는 주된 시행반명을 변경한 새로운 기재이유에 해당한다.

(2) 주된 취지 복합 여부

심사·심판단계에서는 시행반명 1.2 결합에 의해 진보성 의심되는 문제될 바 주된 취지 복합하다 볼 수 없는 새로운 기재이유다.

(3) 연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바 없으므로 특허청 소송심판자 주장 **부당하다**

<문-2>

I. 설문 (1)

1.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시대이다.

2. 국제출원인 인정

대한민국은 지상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인이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1942 (항))

3. 도면 복제출시 규정

(1) 취지 규정 - 19423항

도면에 관해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이후 절차

① 도면 제출시 그 ~~출원인~~ 도출원은 국제출원인으로 본다.

② 도면 복제출시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사안

(1) 법원 심사

도면 필요 없다는 취지 의견 제출한 바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국제출원인

국제출원인은 본래 제1호인인 2024. 2. 3 이 된다.

II. 식문 (2)

1. 국제출원 취급

3.5

대한민국 지평국으로 지평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준
유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1992 188)

2. 국내진입시면제출 - 2032

출원 甲은 국내시면제출기간 (국제출원일로부터 2년 7월) 내에
국내진입시면 제출해야 한다.

3. 번역문 제출 - 2012

甲은 외국어로 출원한바 국내시면제출기간 내에 국어번역문
을 제출해야 한다.

4. 수수료 납부

甲은 22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심사청구

甲은 출원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III. 실문 (3)

1. 영어유문

(1) 관련 규정 - 2002의 2 2항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은 출원시에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2) 법칙 지위

최초 명세서, 도면의 지위를 가진다.

(3) 영향

출원의 이면은 고쳐서키는 영향을 하는 바 신규사항추가금지, 확대된 발명 주의 등 판단 시 기준이 된다.

2. 번역문

(1) 관련 규정 - 2012 5항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등을 최종국어번역문에 따라 번역해 것으로 본다.

(2) 법칙 지위

번역서의 지위를 가진다.

(3) 영향

번역서로 심사 및 등록의 대상이 되며, 원문과 함께 신규사항추가금지 판단시의 기준이 된다.

3.9



IV. 선행 (4)

3, 5

1. 발명 의미. 지식 - 472

출원인 편의를 위해 선행 사건 하 출원인 대해 발명한
수 있다.

2. 신규사항 추가금지 - 472 2항

제외자 불의라 방지는 위해 신규사항 추가 아닌 범위 내에
서 발명한 수 있다.

3. 국제출원 특허 - 2082 3항. 4항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의 경우 최종 국어번역을 및 회
로 명시된 도면 범위 내에서도 발명한 수 있다.

4. 사안

영문문과 최종 국어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심사단계에
서는 영문문 및 최종 국어번역문 모두를 비교하여
신규사항 추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단계에
서 영문문과 대비하여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따라서 심사관의 발명을 인정한 판단은 부당하다.

<끝>

14



<문-3>

I. 서문 (1)

1. PBP 청구항 의의

제법의 회정을 포함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2. 필요성

발명의 종류에 따라 발명의 구조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힘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제2방법을 하는 정하는 방법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종류

(1) 진정한 PBP 청구항

제2방법으로 한정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구항이다.

(2) 부진정 PBP 청구항

반드시 제2방법으로 한정하는 필요성을 갖는 청구항이다.

4. 허용여부

앞서와 마찬가지로 청구항의 기재에 대해 자유로운 방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PBP 청구항도 허용된다.

5. 해석

① 일일제, ② 이일제 등이 있다.

6. 특허요건 판단시 위치제

(1) 종래 위치제

청구항은 제2방법 해명으로 표현한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제2방법 기재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항 기재 자체로서 판단했다.

(2) 전합 위치제

1) 특허반명 범주

특허반명에는 물건반명, 방법반명, 물건은 생산하는 방법반명으로 구분된다(2조 3호)

2) PBP 청구항 성질

PBP 청구항은 제2방법으로 한정하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발명은 물건반명에 해당한다.

3) 물건반명 특징

물건반명을 청구항에 그 구조나 성질을 특징하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4) 제2방법 의미

제2방법이 기재된 경우 그 제2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특징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5) 결론

물건반명을 제2방법으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2방법 자체로 해석하여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제2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를 바탕으로 물건의 구조·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7. 침해요건 판단시 주의사항

(1) 특허요건 판단시와 마찬가지로

침해 요건 판단시에도 원칙적으로 위 특허요건 판단시와 마찬가지로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를 바탕으로 물건발명의 구조·성질을 특정하여 파악해야 한다.

(2)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그러한 방법으로 파악된 청구범위가 명백히 전체적인 기재를 바탕으로 파악한 발명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2방법으로 해석 해석하여 파악해야 한다.

8. 결론

PBP 청구항의 경우에도 그 불질은 물건발명이 해당하므로 특허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모든 기재를 바탕으로, 침해요건 판단시에는 예외적으로 해석 해석하는 취지에 해당 있음 인정한다.

II. 상문 (2)

1. 관련 특허요건

(1) 신규성 - 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출원발명을 선행발명과 다른 것을 요한다.

(2) 진보성 - 29조 2항

기술발견촉진을 위해, 출원발명을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을 요한다.

2. 청구항 1

(1) 특징

청구항 1은 방법발명으로서 방법 A 사용시 공지된 물건인 잉크 X에 비해 변짐이 현저히 적은 잉크가 생산된다.

(2) 신규성, 진보성 판단

잉크 X에 비해 변짐이 현저히 적다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바, 불래 공지된 잉크 제2방법과 달라 신규성 인정되고, 효과 현저성으로 진보성 인정된다.

(3) 2조

청구항 1 등록 적법하다.

3. 청구항 2

(1) 특징



	청구항 2는 물건 발명으로써 방법 A로 잉크 제2시 그
	잉크는 공지된 잉크 X에 비해 번짐이 현저히 적은 바
	효과에 현저하게 인정된다.
(2)	신규성. 진보성 판단
	번짐이 현저히 적은 바 공지된 잉크 X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이 신규성 인정되고, 효과 현저성으로 <u>진보성</u>
	<u>인정</u> 된다.
(3)	신경
	청구항 2 등록 적법하다.
4.	청구항 3
(1)	특징
	청구항 3은 방법발명으로써 방법 B는 제2방법 Y보다 제2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u>바 효과에 현저하게 인정</u> 된다.
(2)	신규성. 진보성 판단
	제2시간 현저히 단축된 바 공지된 제법 Y와 동일하
	다고 볼 수 없이 신규성 인정되고, 효과 현저성으로
	진보성 인정된다.
(3)	신경
	청구항 3 등록 적법하다.
5.	청구항 4

(1) 특징

청구항 4는 물건반영으로서 방법 B로 제조된 잉크는 잉크 X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신규성. 진보성 판단

잉크 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신규성 부정된 것으로 보이고
 선행 신규성 인정되더라도 진보성 부정된 것이다.

(3) 결론

청구항 4 등록 부정법하다.

6. 결론

청구항 1, 2, 3 등록 정법하나, 청구항 4 등록 부정법하다.

11. 설문 (3)

3.5

1. 특허반영 ~~특징~~

(1) 특징 권리범위

방법 A는 잉크 제조방법 Y에 물질 P를 첨가하는 단계는 더 포함하고, 방법 A로 제조된 잉크는 잉크 X에 물질 P를 더 포함하는 것 외에 별다른 구성상 특징이 없다.

(2) 부진성 PBP 청구항 여부

방법 A로 제조된 잉크는 잉크 X에 P를 포함하는 것으로
 표현된 5 있는 바 부진성 PBP 청구항이다.

(3) 명백 분할의 여부

제법 A로 제조된 잉크는 잉크 X에 물론 A를 포함하는 것이
 이기 별다른 구성상 특징이 없는 바 잉크 자체를 제법
 위를 인정하는 것은 발명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넓
 이 명백히 분할하다.

(4) 연결

방법 A로 한정된 방법 A로 제조되는 잉크가 甲의 특허
 권 권리범위에 해당한다.

2. 속박판단

Z이 제조한 잉크는 방법 A와 전혀 다른 방법 C로 제조된
 잉크로서 방법이 전혀 상이하므로 甲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경고

침해가 아니므로 甲의 경고는 부당하다.

<문>

<문-4>

14

I. 무효심판 의의. 취지 - 133조

발명의 발명자 해결수단으로서, 이해 관계인은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II. 적격

2은 甲으로부터 침해금지 경고를 받은 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고 다른 복종법 사유 보이지 않아 무효심판 적법하다.

III. 진보성 판단.

1. 진보성 의의. 취지 - 29조 2항

기술발견촉진을 위해 특허발명을 공시발명으로부터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요한다.

2. 제3자 청구항 여부

甲의 청구항 1은 제3발견기재와 특정발견기재가 포함될 제3자 청구항에 해당한다.

3. 특허발명 확장

甲의 특허발명을 청구항 기재로 보아 'A+B+C+D+E'이다.

4. 선행기술 검색

(1) 선행문헌 1

선행문헌 1은 특의 특의 당시 공지되지 않은 공개용보의
분과호바 선행문헌 검색 있다.

(2) 선행문헌 2

선행문헌 2는 특의 특의 공지될 바 선행문헌 검색 있다.

5. 전제부 기재 공지 여부

(1) 공개 취지

전제부에 기재된 발명을 공지된 것으로 보았다.

(2) 전함 취지

1) 제1

선행기술 공지 여부는 사실인제 문제로서 공지되었는지
여부는 신규성, 진보성은 부정한 자가 증명책임
을 진다. 상대방의 재방, 현제한 사실이 아닐까
중거로서 증명되어야 한다.

2) 결론

전제부의 기재는 그 목적 및 내용이 다양하므
로 전제부의 기재된 사항만을 가지고 그러한
기술이 공지되었는지 볼 수 없다.

(3) 검토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된 기술의 기재 위치에

따라 공지 여부는 판단하는 것을 개보정진실에 관한
 5 있으므로 전함 위치에 타당하다.

(3) 사안

甲의 발명사 청구항 1 제1항 기재항으로 $A+B+C+D$
 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공지의 사실상 추정. 복면

(1) 전함 위치

1) 제1항

심사과정을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인바, 출원인이 명세서, 의견서 등에
 공지될 기술은 인정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실상 추정

출원인의 의견서, 명세서 등 기재된 항목에 대해 제1
 항 기재 사실이 단순히 ~~공지~~ 선행기술임을 넘어
 공지된 기술이라고 자인하는 경우 공지기술임이 사
 실상 추정된다.

3) 복면

출원과정 등에서 공지기술은 자인한 것이 출원인의
 착오에 의해 것임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그러한 추정은 복면될 수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2) 사안

1) 사실상 추정 여부

甲은 의견서 기재를 통해 A.B.C 및 D는 공작원 구성임을 자인한바 A.B.C. 및 D는 공작기술임이 사실상 추정된다.

2) 복면 여부

甲의 무형신평 대응 과징 등 실행물건 1이 초음파당시 공작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바 공작기술임을 자인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위 추정을 복면된다.

3) 소결

A.B.C. 및 D는 공작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보성 판단

(1) 판단 방법 취지

출원방법과 특허행방법 비교하여 차이점은 통상 기술자가 출원시 기술준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사안

실행물건 2에 기재된 후드 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甲의 특허방법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울 보인다.

(3) 소결

특허방법 진보성 인정된다.

결론

甲의 특허방법 진보성 인정되고, 다른 무효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각심결 예상된다.

[문제-1] (특허법은 이하, 특이라 한다.)

I. 실문 (1) -1)

2.8

1. 무효심판 청구인 자격

(1) 고유필수적 공동심판 특 139조 2항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는 공유자 모두를 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안

甲과 乙이 공유특허권 특허권자로서 함께 청구인 자격을 가지는 바, 丙은 甲, 乙 모두를 대상으로 무효 심판 청구해야 한다.

2. 특적목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자격

(1) 고유필수적 공동심판 특 139조 3항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해 심판 행할 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2) 사안

甲과 乙이 함께 특청구인 자격을 가지는 바,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II. 실문 (2)



II. 심문 (1)-(2)

5.6

1. 심문취조소송 조.186조

심문에서 불리한 심문을 받은 자가 특허법원에 그 심문의 취조를 수반하는 소송이다.

2. 심문취조소송 원고격 조.186조 2항

연송의 대상이 되는 심문의 당사자 등은 원고격을 가지는 바,
① 甲과 같은 원고격이 있다.

3. 문제점

특허권이 승유인 경우 심문취조소송의 원고격 인정하여, 심판
에시의 조.139조 3항과 같은 영문 규정이 있어 공제에 인
수되기 가능한지 문제된다.

4. 학설

① 유원특수권 공제소송설, ② 유사원특수권 공제소송설 있다.

5. 취지

(1) 결론

상동법 관련 사건에서, 공제인 특허권은 소변사에게나 그 권리
행사는 방해하는 심문이 있는 경우 공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심문취조소송 제기 가능하다 하되, 심문취조소송을



보존행위로 보는 동시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유권 인정이다.

(2) 논거

- ① 공동소유를 강제하면 공유자 중 어느 하나가 그 제기에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특허권 공유자들에게 불리한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 ② 반면 공유자 중 1인의 소 제기를 허용하여라도 승인하면 심판이 취소되고 심판이 재제하여, 패소하면 심판이 확정되는 것이 그와 합인행위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

6. 검토

심판취소소송은 보존행위 인정으로 공유자 중 1인이 소 제기 가능하게 함이 타당하다 (민법 265조).

7. 4안의 해설

- ① 甲과 그은 모두 해당 심판취소소송에 대한 원상회복 원,
- ② 甲 또는 그 어느 하나가로 자취이 소 제기 가능하다.

III. 실문 (2)

5.6

1. 심판권자주의 조.186조 6항

심판취소소송은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닌 제기를 수 없다.

2. 문제점

심판위원회의 심판 결과에서 심의·판단 받은 심판의 위법 사유를 서로이 주장·입증 가능하게 명시한다.

3. 핵심

① 심판위원회의를 근거 한 제한권, ② 심판의 독립성과 및 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회의가 사법권 제1심권을 이유로 한 무제한권이 인정된다.

4. 사례

① 심판위원회의의 효력은 심판의 위법성 인정으로 근거로, 당사자는 심판 결과에서 심의·판단 받은 심판의 위법 사유를 각자로서 주장·입증 가능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한다.

② 이다 같이 볼라고 하여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반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③ 심판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제3자의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다.

5. 검토

가심판위원회의 제도 및 심판위원회의의 효력 등을 고려할 때, 무제한권을 인정할 수는 사례의 테를 인용 하겠다.

6. 사안의 해전

甲은 해상 침범취소응에서 침범권자에서 상하. 인권대하
 양은 상하의 위법사유를 서로이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하. 인권대하할 수
 있다.

IV 결론 (3)

1. 기권보강불복상한 심사범위 문제

(1) 상하. 심판 단계

조. 62조. 63조, 110조에서 기권보강 권 또는 기권보강의 여부와
 다른 사유로 기각상환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서 어떠한 의견제출기회 없이 상하의 절차에 있어
 결정사한 사유로 기권보강불복상환을 기각한 상환은 위법하다.

(2) 상환취소응 - 이관사

이러한 법원은 상환취소응은 이관사,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새로운 개인사유를
 들어 상환의 위법 사유를 또는 결정사한 사유를 주장. 입증
 할 수는 없다.

(3) 주된 취지 부합하는 경우

다만 상하. 심판 단계에서 직접 주장. 입증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하.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개인사유

를 포함하는 것에 지시 않고 그 주된 취가 부합하는
경우이면 주상. 양은 가능하다.

2. 진보성 판단의 경우 주된 취 부합 판단

(1) 진보성 조. 29조 2항

기술·산업 발전에 의해, 공익으로부터 용이하게 반영 볼 수 있는 것
을 지하는 특허이다.

(2) 심판위원회의 주된 취 부합 판단 - 특허법 제 111조 제 1항

상행기술을 포함, 진보성 판단의 관에 및 판단 내용과 같이
중요 내용이 일치하고, 본질의 방향이 같아 신기술의 발전
에 공헌하는 것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주상행반영이 반영된 경우 제 111조 제 1항

1) 진보성 판단 방법

특허법 제 111조 제 1항의 기술·산업 발전에 의해, 공익으로부터 용이하게 반영 볼 수 있는 것
을 지하는 특허이다. 주상행반영은 전제하고, 특허법 제 111조 제 1항
사이 상행·차이점 파악 후 통상의 기술자가 볼 수 있는
시 그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2) 주상행반영 반영 및 결론

아래한 진보성 판단에 주상행반영이 반영된 경우 일반적
으로 차이점 판단 및 그 극복 방법 등 판단 내용이
일치하므로, 신기술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부합하는지 등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주된 취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개량어구에 해당한다.

3. 사안의 해결 - 선행특허와 주상 특허(2주)

(1) 주상행방명 변경 여부

실용성 불충족하다, 본래 선행방명 | 이 주상행방명 | 이원 것
으로 파악되므로 선행방명 2주 주상행방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2) 주된 취미 부담 여부

주상행방명 변경에 따른 부담이 주에게 선행으로 위변조를 가해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 주된 취미 부담하지
않음 새로운 개량어구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선행특허와의 주상도 심사. 심판 단계에서 위변조를
해가 없던 새로운 개량어구를 주상하를 것으로서 부당하다 [결]

21

[문제-2]

I. 실문(1)

1. 급배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하는 제도이다.



2. 국제출원인의 인정 제194조 1항

국제출원 시점이 출국특허법에 도달한 날은 국제출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보안명령 제194조 2항

항아범의 부채를, 인가 기재불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안명령을 내리며 국제출원인이 연기될 수 있다.

4. 도면 부재물의 처리

(1) 도면 부재의 경우 제194조 3항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음으로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처리를 통지한다.

(2) 도면 제출 여부에 따른 처리

① 도면 제출시기는 그 도면 요청은 국제출원인으로 보지(제194조 4항 본문), ② 부제출시기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 (통지 통지 안내).

5. 사안의 해결 - 甲 도면 부재를 법적으로 처리

① 甲은 도면 부재 통지에도 도면은 제출하지 않은 바에 따른다.
②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며, ③ 甲의 국
제출원인은 2024.2.3.이 된다.

7.5

II. 실문 (2)

1.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대한민국은 지양국으로 한 국제출원으로 그 국제출원인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며 (조.199조 1항), ② 다만 특허출원제도가 존하는 개체 별것 특허제도가 있다 (조.199조 역시 242조).

2. 甲의 특허출원인 없이 권과 권행 가부

① 甲은 국내에 출원·공개가 없이 제타에 출원하는데.
② 개체까지 특허출원인 없이 각법에 권과 권행 가부 있다 (조.206조).

3. 국내출원시 권입에 관한 권과

(1) 국내출원시 권입을 조.203조 1항

甲은 국내출원시 권입기간인 2026.9.3.까지, 국내출원 권입시 권입을 권입해야 한다.

(2) 국내출원시 권입을 조.201조 1항

甲은 특허출원 시 권입이 없는 국내출원 권입기간인 2026.9.3.까지 외국 출원에 대한 국내출원 권입을 권입해야 한다.

(3) 특허출원 조.82조

甲은 출원권에서 권입한 특허출원을 권입해야 한다.

(4) 심사청구 조.59조. 202조

甲은 2024.2.3.까지 심사청구해야 한다.

7,5

III. 식문 (3)

1. 영미권문의 법적 각위

(1) 특허 규정 조. 200조의 2 조항

국제출원인까지 제출된 발명의 신규, 창작성이 못 되면
조. 42조 조항에 따른 특허출원인이 최초로 출원 명세
서 또는 선행으로 본다.

(2) 법적 각위

따라서 영미권문은 "최초의 명세서·도면"의 각위를 가진다.

2. 국제출원문의 법적 각위

(1) 특허 규정 조. 201조 5항

특허출원인이 국제출원문을 제출한 경우 국제출원인까지 제출한
발명의 신규, 창작성, 도면은 다음 출국출원인이 아닌
국제출원인에게 조. 41조 조항에 따른 우선권을 갖 것으로 본다.

(2) 법적 각위

따라서 국제출원문은 "발명"의 각위 역시 "명세서·도면"의
각위를 가진다.

3, 5

IV. 식문 (4)

1. 보정 조. 41조

출원인 또는 출원 대리인 명세서 등을 잘못 기재하는 제101조.



이론과 실험을, 분자화학 실험 방법과 같이 방법의 종류에 따라 제2방법의 기재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구별 가능성의 미약이 지적될 필요가 있으므로, ①그와 같은 방법을 제1방법에 의해만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당한 바, ③PbP 항암제의 기재가 적당하다.

3. 종류

① 진정 PbP 항암

제2방법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의미한다.

② 부진정 PbP 항암

제2방법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이 현저한 제2방법 기재는 통상적인 실험으로 의미한다.

4. PbP 항암 허부(각주)

2007년 7월 1일 개정법률 제42호 6항을 신설하여 PbP 항암과 같은 기재 방식을 허용하였다.

5. 특허된 원인지 항암제 제조방법

(1) 학설

① 인위적인 유전자변형 및 제형변형, ② 인위적 등이 있다.

(2) 종래 제1제

항암제를 제2방법 기재로 방법을 특정할 사항이 있는지 여

부에 따라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제2방법 한정 없이 물건 자체로 파악하는 양상이다.

(3) 관습 위/하

1) 특허법상 한정 종류

지. 23 조 3호 각목은 한정을 물건한정, '방법한정', '제2 방법 한정'으로 나눈다.

2) PBP 항항의 한정 성질

관계자로 물건으로 기재하여 제2방법의 기재는 포함하는 한정 제상은 허용생성물인 바, PBP 항항은 물건한정에 해당한다.

3) 물건한정 기재 방법

물건한정 항항위는 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명의로 기재되어야 한다.

4) 제2방법 기재의 약화

여기에서 제2방법을 물건의 구성의 일부로 한정하는 수단으로서만 의미는 가진다.

5) 결론

따라서 제2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 여부를 불문하고, 제2방법에 한정하여 만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제2방법 기재를 포함한 항항에 모든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구성의 일부로 가지는 물건은 한정하는 양상이다.

(4) 검토

PBP 항생은 물리반응의 인공이나, 조합 화합물 타당하다.

6. 컴퓨터 지원식 항생제 배합방법

(1) 화합물

1) 원리 - 컴퓨터 지원식 배합법

위의 같은 컴퓨터 지원식 배합방법은 컴퓨터 지원식
인공으로 배합법으로 식용된다.

2) 예시

다음 예시한 배합방법이 위에 주어진 인공이 명제
시 전체 가계로 배합법은 반경 인공에 배합 가계
기 인공은 물리 반응한 사상이 인공 배합법에 배합
그 배합을 인공할 수 있다.

(2) 검토

물리 화합물 인공으로 배합 PBP 항생의 배합법 인공 항
생 배합을 가계 배합을 인공 화합물 배합 타당하다.

7. 결론

PBP 항생은 물리반응 인공으로 배합된다. 다만 그 배합방
법과 인공하여 배합 PBP 항생에 배합 배합 배합이 가
지나 있다.

II. 식별(2)

1. 제형성

이 특허에 간접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간접상. 간접상을 위주로 등록 목적은 식별.

2. 간접 특허성

(1) 간접상 3조 2항 1항

특허는 상하의 대가인바, 허가권나 용해에 관한 것 이다.

(2) 간접상 3조 2항 2항

기술. 산업 분야를 위해, 허가권나 용해에 관한 것 이다.

3. 항구항 1의 경우

(1) 특허

방법 A로 제1항 항목을 용해한 후 X에 대해 방법이 변
개하여 각각, 그 결과의 현상이 있다.

(2) 등록 목적(3항)

따라서 방법 A는 간접상. 간접상에 관한 것 이다. 등록 타
항하여 식별한다.

4. 항구항 2의 경우

(1) 특허

방법 A2 제2항은 양쪽도 PPR 항상으로, ② 그 클리어 구
나 상에 있는 X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이 작은 특징을
가지는 바, ③ 구와 다른 층이 존재한다.

(2) 특징 식부(각각)

따라서 상대적·절대적 인장률은 서로 특징 다르다.

5. 항상 3의 경우

(1) 특징

방법 B는 제1항항 Y와 제2항항이 존재한다,
그 층이 존재한다.

(2) 특징 식부(각각)

따라서 상대적·절대적 인장률은 특징 다르다.

6. 항상 4의 경우

(1) 특징

① 방법 B2 제2항은 양쪽도 PPR 항상인데, ② 그 클리어 구
나 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있는 X와 변형과
이가 없는 층이 존재한다.

(2) 특징 식부(각각)

따라서 상대적·절대적 인장률은 특징 다르다.

7. 신문의 해설

- ① 원각적으로 총원인까지 원각이 아닌 등록이 아닌 것
 ② 이미 등록된 이상 항상 수상에만 무관하게 있어 등록이
 부속한다.

III. 선문 (3)

1. 장벽성

항상 제2항은 PBP 항상에 해당하는 바, 선문 (1)에서
 상술한 항상항위 제2항에 따라 2의 항상이 중첩에서
 정가 타당성이 온다.

2. 제2항의 PBP 항상 종류 - 부속 PBP 항상

- ① 방법 A는 Y에 물인 P를 항상하는 관계를 포함하여,
 ② 양인 X에 P를 더 포함하는 것 이에 대한 구상성
 특성이 없다 바, ③ 제2항으로 특성에 기재한 선문이
 없는 부속 PBP 항상에 해당한다.

3. 제2항을 제2항 방법 기제로 한 항상이 하리 (2항)

- ① 부속 PBP 항상의 제2항 방법을 물인 자체로 인식하게
 되며, ② 형에서 기재에서 인식하는 방법의 선문,
 즉 아의 경우 '제2항 방법'에 대해 제2항 방법이 기재가
 없이 명백히 불합리한 바, ③ 중첩 현상시 제2항은 제2항

법 기세로 반영한 것이라 있다.

4. 신문의 배포 - 정교장부(주)

① 따라서 제1항법 기세로 반영한, 즉 방법 A로 처리된 것이라

② 2의 방법 C로 처리된 임의로 그 구성이 상이하여 권내법
위에 속하지 않는 바, ③ 甲의 정교는 복제하다. [출]

[문제-4]

12.5

I 무효심판 조. 133조

응답, 하라 같은 특허를 소관하는 승판 레이다.

II 관련 무효사유 - 권내법 조. 29조 2항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공개로부터 쉽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II 특허발명 확성

$A+B+C+D+E$ 로 구성된 제1항법이다.

IV 산업발명 저작

1. 산업발명 의 경우

$A+B+C+D$ 로, 甲 특허권인 것 승인이 많아 원상회복
신생물인 것을 없다.

2. 신생물인 2의 경우

甲 특허권인 것 승인이 다시 신생물인 것을 된다.

V. 문제점 정리

1. 甲 항항 | 생인-생인 항항

전체부 $A+B+C+D$ 다 E로 기재한 생인항항에 해당한다.

2. 생인

① 전체부에 기재된 생인을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특허권 신생물 등 이 사건이 있었던 경우 특허권 가능성이 높았다.

VI. 전체부 기재 생인 승인 여부(5주)

1. 총체 승인제

전체부 모든 생인항항은 기재된 생인을 승인으로 볼 수
 일하는 가능하다.

2. 간접 승인제

(1) 간접

① 특허권인 것 승인이 없는 것은 사실인생의 문제로서, ② 그 승인
 책임은 권리인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③ 이는 승인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2) 간접

① 환자합의의 권제부는 그 목적은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가장내용 요약하게 각을 문장은 한문자들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한 바, ② 권제부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승계
감이나 볼 수 없다.

3. 검토 - 권합 취제 별다른

권제부에 특정 된 사항으로 각을 볼 수 있으나 권제부 볼
수 없고, 각본식 식선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권합
취제가 타당하다.

VII. 특허법령을 승가인 및 반복 기법(각주)

1. 권합 취제

(1) 권제

특허법 상의 권제부는 상한 내의 권제부의 취제의 의의
시 이를 통해 통해 권제부의 취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본질적 취제의 취제 아래에 있는 취제가 특허법 상
권제부의 취제에 관한 경우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상한 취제

특제 취제인이 제정기 또는 제정기의 취제는 임의
취제 취제가 특허법 상 권제부의 취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이는 특허법 상 권제부의 취제에 관한 취제
취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복제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다만 이러한 청구가 권리적인 것은 아닌 바, 선제권은
특정된 해를 내지 않은 것은 관으로 승인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권
청구가 가능하다.

2. 검토

심사청구에서 상기 사건은 ^{사후권} 자백한 것이 볼 수 없으므로,
사후권 주장하여 복원 여부를 등 심사청구 해로 하십시오.

VII. 사안의 해설 - 기각심판 예상

1. $A+B+C+D$ 가 관해부 기재되어 승인된 권리(2주)

이는 관해부에 기재한 생명만으로는 특정된 권리 승인된 기
호로 볼 수 없다.

2. 공개가인으로 생명 주장하기(각주)

다만 甲이 $A+B+C+D$ 를 특정된 권리 승인 것으로 인정하여,
특정된 권리 기호로 생명 주장한다.

3. 복원가능성(각주)

그러나 이는 甲의 관해에 기한 바, 생명 주장은 복원
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A+B+C+D$ 가 생명본질의 각자를 가하지 않아,
甲 본질의 진본성이 부진하지 않은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심판된 것이다. (아니오)